

다산포럼

송재소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 있는 21개 도서관에서 대출 실적이 저조한 책들을 퇴출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헨리 에덤스의 '교육론'을 비롯한 다수의 인문과학 서적들과 에밀리 다킨슨의 시집, 헤밍웨이의 소설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페어팩스 카운티의 21개 도서관을 관장하는 샘 클레이 회장은 "많은 책이 꽂혀있는 서가에서 한 권의 책만 읽었다면 아까운 일"이라며 "사람들이 보지 않는 책은 가져다 없애고 돌려주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엄숙하고 딱딱한 인문과학 서적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헤밍웨이의 소설들까지 도서관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에 나는 조그마한 충격을 받았다. 헤밍웨이가 누구인가! 그의 소설들, 특히 전쟁소설들은 전쟁의 무의미함, 전쟁 속의 인간 행태를 큰 스케일로 그려낸 20세기의

고전이 아닌가. 그의 작품들이 도서관에서 퇴출 위기에 처한 반면, 그가 작품 활동을 했던 쿠바의 집필실, 그가 자주 다녔다는 카페는 연중 관광객들로 북빈

다고 한다. 쿠바는 헤밍웨이 때문에 먹고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헤밍웨이의 작품은 읽지 않으면서 헤밍웨이의 자취를 찾아 즐기는 현상에서 현대 문명사회의 한 단면을 본다. 이것은 비단 미국만의 현상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자들은 인문 학 서적을 외면하고 자극적이고 현란한 제목을 달고 나오는 책을 더 선호하고 있다. 물론 재테크나 건강, 처세 등을 다룬 실용서가 가치 없다는 말은 아니다.

'굿바이 헤밍웨이'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그 가치를 검증 받은 고전들을 단지 찾는 사람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퇴출시켜야 하는가? 이렇게 퇴출된 책들은 도서관의 서가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너무나 많은 책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니까.

사실, 책이 너무 많은 것도 인문학 서적이 퇴출되는 한 원인이 될 것이다. 때로는 '책이 이렇게 많아도 될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다. 더구나 양적 인 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대학교 수 업적평가 제도 때문에 교수들은 너무나 많이 저서들을 쏟아내고 있다. 나도 물론 그 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신간을 비추려면 인기 없는 고전들을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도서관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책이란 많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는 사실은 이미 옛 사람들이 지적한 바 있다. 결출한 실학자인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은 어떤 사람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옛날의 학자는 책이 없어서 걱정이었고 오늘날 학자는 책이 많아서 걱정이입니다. 옛날에는 책이 없어도 영웅과 현자가 배출되었는데 지금은 책이 많아도 인재(人才)가 날로 줄어들고, 어찌 옛과 지금의 운명이 달라서일 뿐이겠습니까? 실로 책이 많은 것이 그 빌미가 되었던 것이지요.

책이 많은 것이 인재가 날로 줄어드는 빌미가 되었다는 홍대용의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홍대용이 살았던 18세기에 비하면 지금은 그 천배, 만배가 넘는 책들이 범람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현대판 분서갱유(焚書坑儒)'라는 엉뚱한 공상을 해보기도 한다. '갱유'는 안 되겠지만 '분서'만이라도.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굿바이 신채호', '굿바이 염상섭'하는 날이 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책은 가져다 없애고 돌려주고 있다"는 천박한 미국식 자본주의의 전철을 재발 우리는 밟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성균관대 교수·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광전발연' 분리운영 득보다 失이 크다

광주와 전남도가 광주·전남발전연구원(광전발연)을 분리 운영기로 했다. 광전발연이 지역사회의 주요 정책결정에 '싱크 탱크' 역할을 해온 만큼 파장이 적지 않다. 시·도가 갑자기 광전발연을 분리기로 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시·도는 광주와 전남의 행정특성과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통합운영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역점시책과 발전전략이 서로 다른 현실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유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광전발연의 분리운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행정기관이 다르다고 연구원까지 분리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시·도가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보다는 별도의 연구원을 운영해서 연구원에게서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된 시·도간 상생·협력 분위기에 역행하는 처사다.

재정부담과 예산 낭비 등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광전발연의 재정난은 심각하다. 운영비 대부분이 연구원과 일반직 등의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어 독자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구원이 분리되면 시·도는 재정에 더 큰 압박을 받게 된다.

연구인력 30명의 연구원을 운영하려면 연간 40억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광전발연을 분리하면 80억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예산이 없으면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고 연구의 부실화는 불가피해진다. 또 문화, 사회복지, 행정평가 분석 등 중점 연구업무가 70%인 상태에서 예산낭비를 우려된다.

시·도는 광전발연 분리를 재고해야 한다. 과거 운영비 부담과 원장 선임문제 등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서로 갈등을 빚었다는 점에서 분리운영이 불가피하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현대차 사태, 노사원칙 바로 세우는 계기되어야

현대자동차가 연발성과급에 반발해 시무식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특근과 잔업을 거부하고 있는 노조 26명과 노조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노조는 이에 맞서 파업과 본사 상경시위 등 투쟁강도를 높이고 있다. 노사 대립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는 세계 6위의 자동차업체로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미 위험신호가 켜진 상태다. 현대차의 생산성은 경쟁력 1위인 일본 도요타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환율하락으로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세계 자동차업체의 집중적인 경제조 생존의 갈림길에 서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과급을 내놓으라며 시무식에서 사장 얼굴에 상처를 입히고 기물을 부순 노조행태는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내팽개친 파렴치한 행위다. 현대차 노조는 지

난해도 13차례나 파업을 벌여 회사에 입힌 피해가 1조5천억 원을 넘는다. 오죽하면 '집단지주의의 대명사'라는 오명까지 얻었을까.

노조가 이 지경에 이르러 된 데는 사측의 책임이 크다. 그동안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편법까지 동원하며 수용하는 등 무원칙한 대응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노조를 경영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경영문화도 노사 갈등을 키우는데 한몫했다.

회사 측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됐다. 경영 손실을 얼마간 감수하고서라도 노사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노조와 타협해 이번 사태도 적당한 넘긴다면 현대차의 미래는 없다.

현대차 사태는 불법파업과 잘못된 노사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원칙과 상식의 틀 안에서 노사관계를 바로 세우지 않고선 국가적 위기를 벗어나지 못할 때이다.

NGO 칼럼

염미봉



요즈음 연예인부부의 이혼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의 연예시절을 거쳐 결혼한 지 10여 일 만에 파경을 맞은 이유에 대해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아내구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육신간신하다가, 남편은 수차례 뺨을 때린 적은 있지만 발길질은 없었기 때문에 유산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다. 멍든 눈과 부러진 코의 피해자 얼굴이 가정폭력의 증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폭력의 원인을 찾고 양쪽 모두 책임이 있다고 양비론을 말한다.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 데도 폭력의 본질을 외면한 채 매스컴은 흥미위주의 보도를 한다. 이 정도

그러나 가정폭력도 폭력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폭력행위자에게 있으며 피해자가 무언가 맞을 짓을 했을 것이라는 피해자유발론은 피해자에 대한 제2의 폭력이다. 이 세상에 맞을 짓이란 없으며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2004년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는 가정은 6쌍 중 1쌍이고, 정신적 폭력까지 포함한 가정폭력 경험은 결혼기간 동안 53.6%로, 가정 안에서 폭력이 일상으로 행해지고 있다.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가정이 폭력피해자에게는 고통과 공포와 지옥의 장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교폭

가정폭력은 이제 그만

의 폭력이 연예인에 의해 가정 밖에서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다루어질까?

피해자는 결혼 전 연예시절부터 상대방에게 구타를 당했으며 구타 직후 응서를 구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겪으며 결혼하면 구타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연예시절의 구타를 상대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며 결혼하면, 아기가 생기면, 나이가 들면, 구타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폭력은 당한 쪽이 참고 노력한다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 폭력임을 깨닫고 고쳐야 한다. 폭력은 숨기면 숨길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큰 폭력이 되고, 가족폭력은 피해자나 자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다.

아내구타가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부부, 가족이라는 미명하에 가정폭력은 단지 부부싸움이라고 이를 지워진다. 목숨을 잃어야만 폭력으로 간주된다.

력, 가정폭력, 군대폭력, 성폭력, 성매매, 인터넷폭력 등이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속에서 무감각하게 이루어지고, TV, 영화, 비디오 등 매스컴에서 각종 폭력이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미화되기까지 한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만연된 폭력이 바로 가정폭력은 사소한 일이라고 치부하게 한다.

이제 사회 곳곳에 배어있는 폭력을 범죄로 인식하고 추방해야하며, 학교 교육과 매스컴 등을 통하여 가정, 학교, 사회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반폭력 의식개혁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특히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가정폭력예방교육, 성평등교육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부부자격증, 부모자격증에 대한 이수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의 모든 폭력은 근절되고, 21세기에 걸맞은 성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광주전남여성상담센터연합 대표>

음식물쓰레기 운반맨 남에게 불쾌감 주지않게 조심히

지난 일요일 오후 늦게 귀가하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음식물 쓰레기 냄새로 숨을 쉬기 힘들었다. 함께 탔던 아이들도 냄새가 난다며 불평을 했다.

엘리베이터 바닥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서 흘린 물로 젖어 있었다.

냄새 때문에 12층까지 타고 가기 힘들어 3층에서 내려 걸여 올라갔다.

한 주민이 보란 용기에 담아뒀던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나오다가 흘러내린 것 같다. 또 일부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나오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덮지도 않고 그대로 들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

아파트는 여러 주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짓을 해서는 안된다. 자신도 그런 일을 당한다면 기분 나쁘지 않겠는가.

▲배근아·광주시 동구 소재동



수탉의 울음소리

닭은 잠을 자는 동물이다. 잠을 자지 않는 동물도 있다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모든 동물들이 잠을 자지는 않는다.

야행성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야행성 동물들의 침입과 습격에 초식동물들 역시 대개 서서 잠시 졸기만 할 뿐이다. 기린처럼 말이다.

사람들처럼 곤한 잠을 자는 경우는 야생 동물들에게는 좀처럼 누리기 힘든 호사에 속한다. 겨울잠을 자는 곰도 그 기간에 새끼를 낳아 기르지 않는다.

그래도 닭은 햇대나 나무 위에 올라 앉아 그런대로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다. 그의 짧은 비상은 려이 거위나 오리들에 비하면 얼마나 편안함을 제공하는지는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목소리를 가다듬고 '꼬꼬깍'하고 기상 나팔을 부는다. 행여 맹금류들이 먼저 깨기 전에 일어나 우렁찬 목청을 뽐내야 하니 그만큼 부지런해야 한다.

혹 늦잠도 자고 싶고, 언제나 일찍 일어나 나는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여하튼 기상 나팔은 수탉의 전유물이 다. 또 모두가 하루 일을 시작하게끔 해



주는 것이 수탉의 일이다.

그러나 수탉이 꼭 새벽에만 우는 건 아니다. 사실 수시로 운다고 해야 한다. 적이 나타날 때는 자신감을 과시하고 두려움을 잊기 위해 울고, 맛있는 먹이를 발견 했을 때는 식구들을 부르려고 운다.

자기 새끼가 부화되어 나올 때도 어김없이 힘차게 울어 제긴다. 그리고 보면 수탉의 울음은 참 표현 없는 아버지들의 마음 속 외침 같다.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세무당국 위탁급식업체 운영실태 감시 필요

우리 회사는 직원이 400명이나 되는 큰 회사다. 회사에서는 외부 업체에게 위탁을 맡겨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자신의 ID카드로 결제해서 식사를 한다.

그런데 최근 두세달전부터 이 위탁 급식업체의 행위가 약간 의심스러워졌다. 일주일에 한번정도, 한달에 4~5번은 꼭 카드체크용 단말기가 고장이 났다며 현금으로 받았다.

카드만 들어대던 직원들은 카드체크기가 고장났으니 지갑 꺼내느라 우왕좌왕하고, 줄지어 지갑을 안갖은 사람들은 동료들로 부터 얻어먹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그리고 요즘 들리는 말로는 이 기계가 고장이 잦다는 이유로 아예 매일 현금을 받는

방법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결과 슬그머니 식사 체크용 카드단말기를 없애고 완전히 수기(手記)계산으로 하겠다는 얘긴데 이는 맘만 먹으면 세금 추적을 완전히 피해갈수 있다.

식사 체크용 카드단말기 한대가 그렇게 자주 고장난다는게 믿기지 않는다. 즉 카드 단말기가 고장났다는 핑계로 현금을 받으므로서 매출액을 축소해 나중에 세금을 덜내려는 수법 아니냐는 직원들의 생각인 것이다.

전국 대기업들의 위탁급식업체들간에 이런 수법이 만연해있는지 모른다.

세무당국이 위탁급식업체들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가 필요할듯하다.

▲주현·광주시 광산구 운수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無等鼓

11초만의 골.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터키와 준결승에서 한국축구가 당한 불명예스런 최단시간내 골이다. 다른 국가가 이 오명을 덮어 써 줬으면 하는 게 한국팬들의 염원이지만 지금껏 이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다.

골을 유발한 장본인인 홍명보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라커룸에 들어가 끝내 황선홍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던 그 경기

는, 월드컵 4강신화의 짜릿한 기억속에서도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당시 유럽의 변방 터키축구를 세계 3위까지 끌어올린 대표팀 감독이 세븐 귀네슈(54)다. 그는 2002년 UEFA 올해의 감독상까지 받으면서 세계적 지도자로 우뚝섰다.

그 명장이 올해부터 서울FC 사령탑을 맡아 축구팬들의 기대를 부풀게 하고 있는데, 그는 한국에 오자마자 쓴소리를 했다. 한마디로 한국프로축구가 '재미 없다'는 것이다. 그의 지적은 간단하다. 축구는 골을 넣어야 하는 게임이고 그라운드외의 모든 선수들이 골을 넣기 위해 조직적으로 뛰는 것이라고 주

장한다. 따라서 골이 나오지 않고 재미가 없는 한국 프로축구에 관중이 울리 없다는 논리다. 입국전 서울팀의 33경기 골 비디오로 감삼(?)한 그는 '선수들이 프로라는 개념을 아직 모르는 것 같다'며 이 모든 문제를 한국선수들의 프로근성 부족으로 돌렸다.

귀네슈에 이어 올해 프로축구관에서 관심을 끌 인물인 박이천(60) 선임인

전 감독이다. 동네 TV 한두대밖에 없었던 지난 1969년부터 6년간 이회택과 함께 국가대표 센터포워드

로 이름을 날렸던 그는, 현 40~50대의 청소년기를 사로잡은 영웅이었다. 그도 역시 취임 일성으로 '재미 있는 축구'를 다짐했

다. 관중을 모으는 일도 감독의 책임이라고 말한 그는 "프리미어리그를 보다 K-리그를 보면 못 볼 정도"라고 지적한 뒤 노병의 비책이 있음을 시사했다.

프리미어리그와 비교는 짝이되고라도 명장들의 활약으로 골이 터지고 자주 터지는 K-리그를 기대해 본다.

/기현호 체육·여론매체부장 khh@

프로 근성



光 叻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幸祐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業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	
대표전화 2200-500		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